무용으로 경험하는 '반가사유'

국립중앙博 '사유의 방' 연계 공연
2번째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
9월 3일과 4일 극장 용에서 공연

채움, 멈춤, 비움 세 이야기로 구성
배우 안석환, 장윤나(무용) 등 출연


국립중앙박물관이 2021년 11월 11일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에 개관한 '사유의 방',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안석환(배우)


장윤나(무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9월 3일(오후 2시, 5시)과 4일(오후 3시) 극장 용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전시연계 공연 두 번째 시리즈로 관객 몰입형 무용 퍼포먼스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을 개최한다.

어둡고 고요한 공간, 어디선가 깊고 깊은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소리는 점점 가쁘게 빨라지고 급기야 일정한 리듬의 호흡 소리마저 흐트러진 숨소리에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희미한 길이 서서히 열린다. 한 길 모퉁이에 쭈그려 웅크리고 앉아 숨만 가쁘게 쉬고 있는 한 여자.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또 한 사람. 천천히 조용히 그녀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속삭인다. "천천히 눈을 떠봐, 뭐가 보이지?" 눈을 감고 지그시 미소 짓고 있는 미륵의 생각 속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길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인간에게는 금지된 사유의 세계로 들어온 주인공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세 명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 과연 그녀는 반가사유상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은 눈을 감은 채 잔잔한 미소를 띠고 깊은 사유에 잠겨 있는 반가사유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관객 몰입형 무용 퍼포먼스다. 극장의 전형적인 무대를 탈피한 새로운 공간 연출과 채움, 멈춤, 비움의 세 가지 이야기로 자신과 반가사유상의 마음 속 세계를 경험한다.

1막 채움 - 소유의 길은 탐욕과 욕심의 현실 속 자아, 2막 멈춤 - 멈춤의 길에서는 쉼 없는 현실에서 잠시 멈춰 있는 자아, 3막 비움 - 사유의 길에서는 이제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자아가 주제다.

배우 안석환이 그림자, 현자, 화자를 연기한다. 안석환은 에쿠우스, 리어왕, 멕베스 411, 고도를 기다리며, 웃음의 대학, 리처드 3세 외 다수 출연했다.

장윤나가 무용으로 '나(자아)'를 표현한다. 장윤나는 현재 국립극단 단원(훈련장)으로 국립무용단 '회오리', '더 블빌',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짓(ACT)', SIDANCE 댄서 장윤나 '댄스로그' 외 다수 출연했다. 이예림, 노미진, 유지나, 박희주가 무용으로 그 외 환영들을 연기한다.

극작은 창작뮤지컬 '난설헌의 몽유가'의 박용재가 맡았으며, 연출은 서울드럼페스티벌 등을 연출한 한경아가 맡았다. 안무는 서울시무용단장 정혜진, 음악은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의 음악을 맡았던 김태근, 영상디자인은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송승규, 기술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여했던 김성준, 미술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여했던 김상택이 맡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11월 11일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 '사유의 방'을 개관하고,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전시되고 있는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다. 뛰어난 주조기술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근엄한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뇌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초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며 반짝임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1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있는,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만나게 된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듯, 고뇌하는 듯,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치유와 평안이 다가온다.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함께 전시해 감동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전시 공간 조성에 건축적 요소를 도입했다. 과거의 반가사유상 전시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꾸민 전시실은 건축가 최욱 원오원 아키텍스 대표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전시실을 관람객이 스스로의 관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된 건축 디자인이 길잡이다. 여기에는 여러 디지털 미디어들의 활용도 한몫했다. 미디어 아트 워크 영상을 설치한 긴 진입로는 어두운 실내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위한 전이(轉移) 공간이다. 전시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반가사유상을 마주한 후, 타원형 전시대(展示臺)를 따라 전체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04년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극장 용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 내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보급 및 박물관의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02)2077-2965

원각사 산사음악회 개최

8월 27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등 출연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좋은 벗 풍경소리가 8월 27일 오후 7시 용인 원각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2 찾아가는 음악회, 풍경소리와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 '원각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매년 찬불가열창대회, 붓다콘서트와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공연과 창작활동으로 찬불가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기획·제작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불교음악을 접하기 힘든 도서 산간지역이나 불교문화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불교문화, 불교음악을 통한 문화포교 일환의 정기공연이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공연은 3년 만에 관객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공연이다. 공연에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를 필두로 좋은 벗 풍경소리의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을 가진 성악가 황상미, 팝페라 퀸스틀러가 출연한다. (031)332-1562 박재완 기자

제14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


권미희


배아연


임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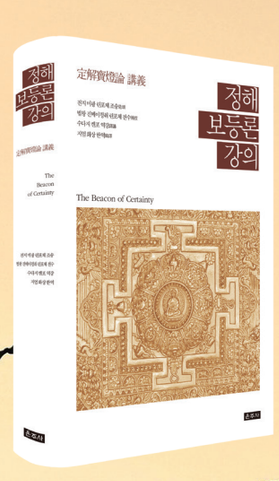
충남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4회 호수음악제 '2022 당진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제는 충남 당진시민과 인근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당진시의 대표 불교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스리랑카, 베트남의 전통예술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1부 특별공연에서는 당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난타 '판타지아' 팀을 비롯해 마하위하러 사원의 '담마프렌즈', 원오 홍연화, 판소리 강리연이 공연한다.

본행사인 2부에서는 개회선언과 성금 전달, 내·외빈 인사말 등이 진행되고, 3부 호수음악제로 이어진다. 보덕사의 꽃이자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덕사 관음합창단'과 즐거운 도반인 '서원사 연화합창단'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당진시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활동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두더락', 화려한 음색과 선율로 축제의 흥을 더해줄 전자현악그룹 '라피네', 보덕사·서원사 지휘자(소프라노 김나희, 바리톤 박성준)들의 따뜻한 무대에 이어 초대가수 배아현, 임찬, 국악가수 권미희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041)353-9306 박재완 기자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